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 2026 World Watch List

###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자료집

일시: 2026년 1월 15일(목) 오전 10시~12시

장소 | 협력:



---

카카오톡 채널



@OPENDOORS\_KR



## World Watch List 2026 순서

사회 : 조남준 목사

1. 개회사 ----- 신현필 대표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2. 2026 WWL 박해순위 발표 및 동향 분석 ----- 조남준 목사
3.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선교 전략적 의미----- 김경복 사무총장
4. 동영상 ----- < 불가능한 믿음: 조 전도사 이야기 >----- 방송실
5. WWL 2026 북한 보고: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 ----- 이다니엘 간사
6. Q&A(질의&응답) ----- 초청 기자단
7. 오픈도어 사역 소개 및 후원 안내 ----- 조남준 목사
8.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 조남준 목사
9. 광고 ----- 조남준 목사
10. 축도 ----- 김성태 이사장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학 명예교수)
11. 기념촬영 ----- 오픈도어선교회 간사



# 자료 목차

|  |      |
|--|------|
| 1. 2026 WWL 순위                           | p.4  |
| 2. 2026 WWL 보도자료                         | p.6  |
| 3. 2026 WWL 브리핑 주요 내용                    | p.10 |
| 4. 2026 WWL 트렌드(Trends)                  | p.11 |
| 5. 2026 WWL 점수 해설                        | p.13 |
| 5-1. 2026 WWL 국가별 박해 현황(1-15 위)          | p.40 |
| 6. 2026 WWL 폭력 관련 항목                     | p.41 |
| 7. 2026 WWL 국가별 종교 통계                    | p.45 |
| 8. 월드와치리스트 선교 전략적 의미(지역교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p.48 |
| 9. WWL 2026 북한 보고: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 | p.56 |
| 10.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후원 안내                    | p.59 |

## 부록

|  |      |
|--|------|
| 1. 2026 WWL 국가별 기독교 박해 현황(51 위 – 75 위 및 필리핀) | p.64 |
|--|------|



# 2026 월드컵과치리스트 순위

보고 기간: 2024.10.1 – 2025.9.30

| 순위 | 국가                    | 점수 |
|----|-----------------------|----|
| 1  | 북한(North Korea)       | 97 |
| 2  | 소말리아(Somalia)         | 94 |
| 3  | 예멘(Yemen)             | 93 |
| 4  | 수단(Sudan)             | 92 |
| 5  | 에리트레아(Eritrea)        | 90 |
| 6  | 시리아(Syria)            | 90 |
| 7  | 나이지리아(Nigeria)        | 89 |
| 8  | 파키스탄(Pakistan)        | 87 |
| 9  | 리비아(Libya)            | 87 |
| 10 | 이란(Iran)              | 87 |
| 11 |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 86 |
| 12 | 인도(India)             | 84 |
| 13 |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 82 |
| 14 | 미얀마(Myanmar)          | 81 |
| 15 | 말리(Mali)              | 81 |
| 16 |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 80 |
| 17 | 중국(China)             | 79 |
| 18 | 이라크(Iraq)             | 79 |
| 19 | 몰디브(Maldives)         | 79 |
| 20 | 알제리(Algeria)          | 77 |
| 21 | 모리타니 (Mauritania)     | 76 |
| 22 |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 75 |
| 23 | 모로코(Morocco)          | 75 |
| 24 | 쿠바(Cuba)              | 73 |
| 25 |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 73 |

|    |                       |    |
|----|-----------------------|----|
| 26 | 니제르(Niger)            | 72 |
| 27 | 타지키스탄(Tajikistan)     | 72 |
| 28 | 라오스(Laos)             | 72 |
| 29 | 콩고민주공화국(DRC)          | 72 |
| 30 | 멕시코(Mexico)           | 71 |
| 31 | 튀니지(Tunisia)          | 71 |
| 32 | 니카라과(Nicaragua)       | 71 |
| 33 | 방글라데시(Bangladesh)     | 71 |
| 34 | 부탄(Bhutan)            | 71 |
| 35 |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 71 |
| 36 | 에티오피아(Ethiopia)       | 70 |
| 37 | 카메룬(Cameroon)         | 70 |
| 38 | 오만(Oman)              | 70 |
| 39 | 모잠비크(Mozambique)      | 69 |
| 40 |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 68 |
| 41 | 튀르키예(Türkiye)         | 68 |
| 42 | 이집트(Egypt)            | 68 |
| 43 | 코모로(Comoros)          | 68 |
| 44 | 카타르(Qatar)            | 67 |
| 45 | 카자흐스탄 (Kazakhstan)    | 67 |
| 46 | 네팔(Nepal)             | 67 |
| 47 | 콜롬비아(Colombia)        | 66 |
| 48 | 차드(Chad)              | 66 |
| 49 | 요르단(Jordan)           | 65 |
| 50 | 브루나이(Brunei)          | 65 |

# 2026 WWL 보도자료

##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의 폭력 급증

폭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인 수단과 말리에서도 역사적인 점수 상승을 이끌었다.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치명적 폭력의 중심지로 남아 있다. 보고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4,849 명 중 3,490 명이 나이지리아인이었으며, 이는 전년도 3,100 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시리아는 2017 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 상위 10 위권에 다시 진입했다. 이는 2024 년 12 월 아사드 정권 붕괴와 지하디스트 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ay'at Tahrir al-Sham, HTS)의 권력 장악 이후, 월드와치리스트 역사상 가장 큰 연간 점수 상승 중 하나를 기록한 결과다.

월드와치리스트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4 년 12 월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의 새로운 지도 아래서 잠시나마 안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한 반전이었습니다. 예배 중인 신자들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 교회의 훼손, 그리고 신자들이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SIS 의 영토 패배 이후 수년간 비교적 잠잠했던 시기를 지나, 시리아는 다시 월드와치리스트 상위 10 위로 급상승했으며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2 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한 6 월 다마스쿠스 공격은 안전하다는 모든 환상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이 냉혹한 현실은 긴급한 국제적 관심을 요구합니다. 국가의 보호가 무너지고 극단주의 이념이 그 공백을 채울 때, 그 대가는 종교적 소수자들이 치르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 시리아 점수의 역사적 급등

시리아의 점수는 12 점 상승해 90 점에 도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6 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 순위도 18 위에서 6 위로 급상승했다. 이는 2014 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현행 평가 방식 하에서 기록된 가장 큰 연간 상승 폭 가운데 하나다.

이 급등의 가장 큰 요인은 폭력 점수가 9 점 상승한 데 있다. 폭력 점수는 7.0 점에서 16.1 점으로 급등했으며, 이는 최대 가능 점수 16.7 점에 근접한 수준이다. 월드와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는 보고 기간 동안 최소 27 명의 시리아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전년도 0 명과 대비된다. 2025 년 6 월,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마르 엘리아스(Mar

Elias) 그리스정교회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기독교인 22 명이 사망하고 63 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력은 살해에만 그치지 않았다. 하마(Hama)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 괴한들이 그리스정교회 대주교구를 공격해 교회 재산과 종교 상징물을 파괴하고, 인근 기독교 묘지의 무덤을 훼손했다. 교회들은 반복적인 공격에 노출되었고, 기독교 학교들은 폐쇄되었으며, 교회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급격히 증가했다.

연구진은 "다마스쿠스에서 발생한 공격 이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추가 공격에 대한 불안과 이슬람 급진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신자들은 기독교 상징물을 숨기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 **폭력을 넘어 심화되는 압박**

2025년 3월 제정된 시리아의 과도 헌법은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이슬람 율법을 입법의 주요 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 제도 역시 이슬람 이념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슬람 이전의 역사는 삭제되고, 기독교인을 "저주받고 길을 잃은 자들"로 묘사하는 꾸란 해석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고 있다.

현재 다마스쿠스의 기독교인 거주 지역에서는 확성기를 장착한 차량들이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교회에는 개종을 요구하거나, 비무슬림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지즈야(jizya)를 내라는 전단이 게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리아의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국가 생활 영역에서의 박해 점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점수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 **감소하는 기독교 인구**

오픈도어(Open Doors)는 현재 시리아에 남아 있는 기독교인이 약 3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2013년 이슬람국가(IS) 세력이 이 지역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이전과 비교할 때 수십만 명이 감소한 수치다.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들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특히 국가의 치안이 부재한 지역에서는 현지 기독교 가정들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부족 연계가 없어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속되는 위기**

시리아의 상황도 매우 심각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해의 규모는 여전히 충격적이다. 월드와치리스트에 포함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4개국에는 총 7억 2,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 8명 중 1명은 이 14개 국가에 살고 있다.

이 지역 전반에서 폭력 점수는 급격히 상승했다. 10년 전, 당시 월드와치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개국의 폭력 점수 합계는 최대 가능 점수의 49%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6년에는 14개국의 폭력 점수 합계가 최대치의 88%에 달했다.

2026년 기준, 폭력 부문에서 최고점인 16.7점을 기록한 국가는 전체 목록 중 단 세 나라뿐이며, 이들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인 수단, 나이지리아, 말리였다.

### **나이지리아 박해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1월, 신앙을 이유로 매년 대규모로 살해되고 있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명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언론은 나이지리아 내 박해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 보도에 나섰다.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치명적 폭력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국가다. 보고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4,849명 중 3,49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희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3,100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5년 6월에는 무슬림 풀라니(Fulani) 무장 세력이 베누에주(Benue State)의 기독교 농촌 공동체 엘와타(Yelwata)를 4시간 동안 공격해, 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258명을 총살하거나 불태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이지리아의 분쟁은 복합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으나, 가해자들의 명확한 의도는 분명하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풀라니 무장 세력은 공격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또한 납치된 기독교인들은 보코하람(Boko Haram) 대원들로부터 “네가 무슬림이었다면 이런 고문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수단에서는 내전이 계속되며 기독교인들의 강제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수단 국민 960만 명이 국내 실향민 상태에 놓여 있으며,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양측 모두 이슬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수단은 박해 순위 4위로 상승했다.

이러한 양상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다. 취약한 정부 통치로 인해 발생한 권력 공백을 이슬람 무장 세력이 채우며, 부르키나파소,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니제르, 모잠비크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이 사실상 처벌받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다.

### **고립으로 내몰리다**

2026년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선 또 하나의 심각한 세계적 흐름을 보여준다. 감시 강화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교회들이 지하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알제리의 상황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준다. 알제리의 전체 점수는 77점으로 변함이 없었지만, 점수의 구성은 크게 달라졌다. 모든 개신교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면서 폭력 점수는 낮아졌으나,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신앙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공동체 생활과 국가 생활 영역에서의 압박 점수는 상승했다. 당국은 팔로워 5만 명 이상을 보유한 기독교 페이스북 그룹을 폐쇄하고, 교회 활동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알제리 기독교인의 75% 이상이 신앙 공동체와의 연결을 상실한 상태다.

비슷한 양상은 중국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은 폭력이 아닌 국가 생활 영역에서의 압박 증가로 인해 사상 최고 점수인 79 점을 기록했다. 2025년 9월 시행된 종교 성직자의 온라인 활동 규정은 성경 앱 사용, 모금 활동, 전도, 청소년 대상 사역을 금지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산당에 대해 지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 대규모 상업 공간에서 모이던 가정교회들은 현재 10~20명 규모의 소규모 비밀 모임으로 쪼개져, 개인 주택에서 은밀하게 예배드리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튀니지, 모리타니, 베트남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강화된 관료적 통제, 감시 체계, 모호한 규제가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앙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

### **일부 긍정적인 변화**

방글라데시는 2024년 8월의 정치적 격변 이후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보였으며, 폭력 점수는 약 20% 감소했다. 임시 정부 수반인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는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나, 향후 예정된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약속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법원이 2017년 발생한 레이먼드 코(Raymond Koh) 목사의 납치 사건에 대해 정부가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경찰 관계자들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했으며, 미화 약 740만 달러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도 함께 명령했다. 스리랑카는 점수가 4점 하락하고 순위도 네 계단 내려가 65위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기독교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차별적 관행이 줄고, 사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 결과다.

###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World Watch List) 소개**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WWL)는 기독교인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겪는 50개 국가를 매년 순위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평가 방식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더불어,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공동체 생활, 국가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폭력 등 여섯 개 영역에서의 압박 정도를 측정한다. 순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2개월간 수집·검증된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었다.

# 2026 WWL 브리핑 주요 내용

- 1-3 위는 2025 년과 순위가 같습니다. 1 위는 북한, 2 위는 소말리아, 3 위는 예멘입니다.
- 상위 50 위권 국가 중 점수 상승폭이 가장 큰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승폭 순).

| 국가(2026 년 순위)   | 점수 변동   | 점수 상승의 주된 요인                  |
|-----------------|---------|-------------------------------|
| 시리아(6 위)        | + 12 점  | 폭력성 점수 증가 및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압박 심화 |
| 부르키나파소(16 위)    | + 4.1 점 | 폭력성 점수 증가                     |
| 카메룬(37 위)       | + 3.6 점 | 폭력성 점수 증가                     |
| 타지키스탄(27 위)     | + 3.5 점 | 폭력성 점수 증가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22 위) | + 3.4 점 | 폭력성 점수 증가                     |
| 네팔 (46 위)       | + 3.4 점 | 폭력성 점수 증가                     |

- 상위 50 위권 국가 중 점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순위)      | 점수 변동   | 점수 하락의 주된 요인 |
|-------------|---------|--------------|
| 리비아(9 위)    | - 4.8 점 | 폭력성 점수 감소    |
| 방글라데시(33 위) | - 3.0 점 | 폭력성 점수 감소    |

- 50 위권 밖 주요 상승국: 남수단(64 위, 작년 76 위)과 베네수엘라(69 위, 작년 71 위)가 작년에 비해 상승 이동했습니다.
- 50 위권 밖 주요 하락국: 베트남(순위 55 위, 작년 44 위), 스리랑카(65 위, 작년 61 위)가 작년에 비해 하락 이동했습니다.

# 2026 WWL 트렌드(Trends)

## 1. 시리아: 폭력의 급증과 기독교 인구의 감소

1) **순위 급상승:** 시리아의 박해 점수는 지난해 78 점에서 올해 역대 최고치인 90 점으로 상승했다. 12 점 상승은 2014 년 이후 단일 연도 증가 폭으로는 최대 수준 중 하나이며, 순위는 18 위에서 6 위로 뛰어올라 10 위권 내 유일한 신규 진입국이 되었다.

2) **폭력의 재현:** 가장 큰 원인은 폭력 점수의 급등(7.0 점 → 16.1 점)이다. 2024 년 12 월 아사드 정권 붕괴 후 지하드 단체(HTS)가 집권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3) **주요 사건:** 2024 년 12 월 하마 지역 교회 공격 및 묘지 훼손, 2025 년 6 월 다마스쿠스 성 엘리야 교회 자살 폭탄 테러(22 명 사망) 등이 발생했다. 2025 년 9 월까지 최소 27 명의 살해가 확인되었다.

4) **생활의 변화:** 새로운 임시 헌법은 이슬람 법학을 입법의 주요 원천으로 규정했다. 교회들은 감시와 테러 위협으로 활동을 축소했고, 다마스쿠스에서는 개종을 종용하는 확성기 차량과 전단지가 등장했다.

5) **인구 감소:** 현재 약 30 만 명의 기독교인만 남은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10 년 전보다 수십만 명 줄어든 수치이다. 국가 치안 부재로 인해 부족 중심의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만, 부족에 속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이 보호망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법치 붕괴와 국가적 위기

1) **거대한 박해 규모:** 전 세계 기독교인 8 명 중 1 명이 박해 순위에 오른 사하라 이남 14 개국에 거주한다. 10 년 전과 비교해 평균 점수는 68 점에서 78 점으로 상승했다.

2) **폭력의 정점:** 수단, 나이지리아, 말리는 폭력 점수에서 만점(16.7 점)을 기록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 기독교인 살해 인원(4,849 명) 중 72%인 3,490 명이 발생한 치명적 폭력의 진원지이다.

3) **정세 불안:** 14 개국 중 5 개국이 지난 5 년 사이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법치주의의 붕괴로 인한 공백을 무장 이슬람 세력이 메우며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다.

4) **수단과 콩고:** 수단 내전으로 인해 수백 개의 교회가 파괴되었고,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는 IS 연계 세력(ADF)의 공격으로 기독교인들이 발견 즉시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5)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 소말리아는 북한에 이어 세계 2 위의 박해 국가이며, 에리트레아(5 위)는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릴 만큼 가혹한 통제로 기독교 자산을 압수하고 있다.

### 3. 고립으로 내몰리는 교회: 감시와 규제

1) **알제리:** 모든 개신교 교회가 강제로 폐쇄되었다. 기독교인의 75% 이상이 공동체와의 연결을 잃고 고립되었으며, 이제는 개인 주택에서 비밀리에 모여야 한다.

2) **중국:** 박해 점수가 역대 최고(79 점)를 기록했다. 2025 년 '종교 성직자 온라인 행동 규정'을 통해 온라인 설교, 성경 앱, SNS 라이브 등을 엄격히 금지했다. 독립 가정교회들은 10~20 명의 소규모 모임으로 쪼개져 은밀하게 운영 중이다.

3) **베트남:** 폭력은 줄었으나 행정적 통제는 강화되었다. 2024 년 법령에 따라 교회의 인사, 재정, 활동에 대한 상세 보고가 의무화되었고 당국의 종교 집회 중단 권한이 확대되었다.

### 4. 긍정적인 변화와 소망의 소식

1) **방글라데시:** 2024 년 정권 교체 이후 임시 정부가 종교 자유를 강조하면서 폭력 점수가 20% 하락했다.

2) **말레이시아:** 2017 년 납치된 레이먼드 코 목사((Raymond Koh)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하고, 정부에 재조사 및 유가족에 대한 대규모 배상(약 740 만 달러 이상)을 명령했다.

3) **스리랑카:** 2024 년 들어선 새 정부가 종교적 차별 관행을 줄이면서 박해 순위가 65 위로 하락했다.

#### [참고] 기독교인의 삶의 영역별 정의

| 영역     | 정의 및 조사 내용                     |
|--------|--------------------------------|
| 개인 생활  |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 (기도, 성경 읽기 등)   |
| 가족 생활  | 가족 내에서의 신앙 전수 및 차별 여부          |
| 공동체 생활 | 직장, 학교 등 지역 사회에서의 괴롭힘과 차별      |
| 국가 생활  | 법률, 사법 시스템에 의한 억압 및 시민권 제한     |
| 교회 생활  | 집단적인 예배의 자유 및 교회 자산 운영 권리      |
| 폭력     | 살해, 납치, 신체적 가해, 교회 파괴 등 직접적 공격 |

# 2026 WWL 점수 해설

## 1 위 북한

| WWL 2026<br>(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 WWL 2025<br>(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 WWL2026-<br>WWL2025 |
|---------------------------|---------------------------|---------------------|
| <b>97</b><br>(97.224)     | <b>98</b><br>(97.779)     | <b>-0.5</b>         |

- 압박(Pressure) 점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능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독재 권력의 강압적 통제가 사회 모든 부분에 깊숙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 그러나 폭력(Violence) 점수는 WWL 2025 년의 14.4 점에서 13.9 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과 교회 단체에 관하여 수집된 공안 조직들의 급습(police raids)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정보 수집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수 하락이 해당 국가의 기독교인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2 위 소말리아

| WWL 2026<br>(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 WWL 2025<br>(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 WWL2026-<br>WWL2025 |
|---------------------------|---------------------------|---------------------|
| <b>94</b><br>(94.446)     | <b>94</b><br>(94.085)     | <b>0.4</b>          |

- 전체 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압박은 지속적으로 극단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씨족 지도자, 원로, 가족 구성원들은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의심되는 모든 개인을 면밀히 감시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알샤바브(Al-Shabaab)의 활동으로 인한 광범위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사회에서 기독교인임을 밝히는 것은 종종 사회 규범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으로 간주합니다.
- (보고서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수치를 얻기 힘든)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한 폭력 발생률이 더 높았다면, 이 나라는 전 세계적인 박해 순위에서 아마도 최상위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 3 위 예멘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93**  
(93.150)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94**  
(93.891)

WWL2026-  
WWL2025

**-0.7**

-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압박 수준은 계속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폭력(Violence) 점수는 10.5 점으로 거의 변동 없이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지난 WWL 2025 보고 기간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따라 전체 점수는 1 점 하락했습니다.

### 4 위 수단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92**  
(92.429)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90**  
(90.028)

WWL2026-  
WWL2025

**2.4**

- 수단은 WWL 2026 에서 역대 최고점인 92 점을 기록하며 글로벌 순위 4 위를 차지했습니다. 2 점 상승은 국가 영역, 교회 영역, 그리고 폭력 부문 전반의 증가를 반영합니다.
- 지난 세 번의 보고 기간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꾸준히 악화했습니다. 내전은 국가 권한을 약화하고 무장 단체들을 대담하게 만들었으며,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일상인 지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들은 점거되거나 파괴되었고, 성직자들은 위협받거나 피난했으며, 기독교인 가족들은 반복적인 도피 생활로 내몰렸습니다.
- 수단의 다른 집단들도 고통받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의 입지는 특히 불안정합니다.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고,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민병대, 보안 요원 또는 지방 당국에 표적이 될 때 의미 있는 구제 수단도 없는 소수 민족입니다. 이들의 취약성은 무장 세력들이 이념적 통제를 강요하고, 기독교인 정체성을 외래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개종에 대한 비난을 협박이나 갈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 5 위 에리트레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90**  
(90.069)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9**  
(88.944)

WWL2026-  
WWL2025

**1.1**

- 에리트레아의 WWL 점수는 대략 5 번의 연속된 보고 기간 88~89 점 사이에서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폭력(violence) 부문의 1 점 증가(현재 13.3 점)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점수가 1 점 상승했습니다.
- 에리트레아 박해 패턴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미등록 종교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신자들을 적법 절차 없이 무기한 가두며, 독립적인 기독교 표현을 국가 결속에 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엄격하게 통제된 국가 체제하에 살고 있습니다.
- 에리트레아는 미국 국무부의 “특별 우려 국가(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목록에 계속 남아 있으며, 이는 압력의 오랜 기간 지속되고, 심각하며, 체계적인 성격을 반영합니다.

## 6 위 시리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90**  
(89.553)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8**  
(77.523)

WWL2026-  
WWL2025

**12.0**

- 시리아의 전체 점수는 12 점 상승하며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주로 폭력(violence) 점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폭력 점수가 7.0 점에서 16.1 점으로 뛰어오르며 극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교회 공격, 북동부 지역 기독교 학교의 폐쇄, 그리고 살해된 기독교인의 증가 등이 지적됩니다.
- 또한 2024 년 12 월 정권 교체 이후 심화된 불안정과 무법 상태로 인해 전반적인 압박(pressure)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지역 민병대와 무장 세력의 확산은 기독교 공동체를 협박과 갈취, 표적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더불어 많은 교회가 보안 문제로 인해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2025 년 6 월 다마스쿠스 교회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7 위 나이지리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9**  
(88.596)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8**  
(88.042)

WWL2026-  
WWL2025

**0.6**

- 반올림된 점수가 1 점 상승한 것은 WWL 2025 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압력(pressure) 점수가 소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폭력(violence) 점수는 여전히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샤리아(Sharia)법을 시행한 주들은 여전히 견제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으며, 국가의 여러 지역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은 국내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결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WWL 2025 보고 기간에는 이슬람 테러 단체의 공격으로 인한 기독교인 사망자 수가 다소 감소하는 조짐을 보였으나,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8 위 파키스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7**  
(86.588)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7**  
(87.195)

WWL2026-  
WWL2025

**-0.6**

- 전체 점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각기 다른 영역(spheres) 내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건의 선고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폭력(violence) 점수는 약간 하락했지만, 교회 생활(church life) 점수는 미미하게 상승했습니다.
- 점수의 이러한 안정성은 박해의 주된 원인(신성 모독법과 기독교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소외)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올해는 (2023 년 자란왈라(Jaranwala) 공격과 비교하여)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박해 사건은 줄었지만,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는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압력과 폭력은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 9 위 리비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7**

(86.529)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91**

(91.295)

WWL2026-  
WWL2025

**-4.8**

-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압박(pressure)은 극단적인 수준이었지만, 폭력(violence) 점수는 10.6 점에서 6.1 점으로 하락했습니다. 계속되는 체포와 구금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극도의 조심성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강요받으면서 교회 모임에 대한 공격이 줄어들었습니다.
- 그 결과, 교회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점수는 4.8 점 하락했습니다.

## 10 위 이란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7**

(86.513)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6**

(86.366)

WWL2026-  
WWL2025

**0.2**

- 이란의 반올림된 점수는 보고된 폭력(violence)의 소폭 증가로 인해 1 점 상승했습니다.
- 압박(Pressure)은 삶의 영역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극단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폭력 점수 또한 매우 높은 상태를 보입니다. 이란 정부는 이란인 기독교 개종자들을 서방 국가들이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약화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이란-이스라엘 전쟁 이후, 정부는 이들을 공개적으로 스파이이자 외세의 협력자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 아르메니아 및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의 역사적 공동체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2등 시민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감시 또한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 11 위 아프가니스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6**  
(85.884)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5**  
(85.428)

WWL2026-  
WWL2025

**0.5**

- 반올림된 점수는 1 점 상승하여 86 점에 되었습니다(실제 증가 폭은 0.5 점 미만이었습니다).
- 폭력(Violence) 점수는 2025 년에 비해 기록된 살해 사건 수가 줄어들면서 소폭 하락했으나, 압박(Pressure) 수준은 전반적으로 더욱 극단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증가가 두드러진 영역은 가족 영역(Family sphere)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외국인 거주 기독교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항에 관한 점수 산정 방식이 개정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인들, 나아가 인도주의적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조차도 가족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 비록 이 보고 기간 공적 영역에서 여성과 소녀에 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해당 영역의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중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기독교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더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12 위 인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4**  
(83.619)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4**  
(83.686)

WWL2026-  
WWL2025

**-0.1**

- 마니푸르 주에서는 여전히 잔혹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올해 집을 떠난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해서 폭력(violence) 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 사생활(Private) 및 가족(Family) 영역에서의 점수 증가는 힌두트바(Hindutva)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힌두트바 운동은 기독교인들을 국가와 공동체를 배신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그 결과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위험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경우, 이는 점점 더 개종 시도로 간주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 13 위 사우디아라비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2**  
(82.254)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1**  
(81.075)

WWL2026-  
WWL2025

**1.2**

- 전체 점수는 주로 폭력(violence) 점수의 상승으로 인해 1 점 증가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Spheres of life)에서 압박(Pressure)은 여전히 극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25 년, 10 여 년 만에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들의 첫 주요 추방 물결이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처음에 심문을 위해 구금되었다가 이후 추방되었습니다. 한 가정 교회가 폐쇄되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접촉된 후 어떠한 공식적인 설명도 없이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 14 위 미얀마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1**  
(80.910)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1**  
(80.730)

WWL2026-  
WWL2025

**0.2**

- 전체 점수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극도로 높았던 폭력(Violence) 점수는 16.5 점에서 16.3 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살해되거나 구금된 사람의 수는 증가했지만, 교회에 대한 공격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수는 감소했습니다. 공동체 생활(Community Life)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삶의 영역(Spheres of life)에서 압박(Pressure)은 매우 미미하게 상승했습니다.
- 교회는 친(Chin), 카친(Kachin), 카야(Kayah)주와 같이 기독교인이 다수를 이루는 지역뿐만 아니라, 카렌(Karen), 라카인(Rakhine), 산주 북부 등 강력한 기독교 소수 공동체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군부 통치 조직(military junta)이 2025 년 12 월로 예정된 선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영토를 재장악하려는 과정에서 전투가 격화되었으며, 해당 선거는 다수의 주민과 많은 국제 관찰자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따라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국내 실향민(IDPs)이 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또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불교도, 무슬림, 또는 부족 공동체의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 15 위 말리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1**  
(80.772)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0**  
(79.661)

WWL2026-  
WWL2025

**1.1**

- 말리의 전체 점수가 1 점 상승한 것은 폭력(violence) 부문이 최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 바마코(Bamako) 외곽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협박, 강제 이주, 갈취,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생활을 겨냥한 반복적인 공격 등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 두 주요 이슬람 무장 단체인 JNIM(Jama'at Nusrat al-Islam wal-Muslimin)과 ISGS(Islamic State in the Greater Sahara)가 이러한 환경을 장악하고 있으며, 엄격한 종교적 통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분쟁 지역 전반에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안사르 딘(Ansar Dine)과 같은 과거의 분파들 역시 자신들의 이념적 유산과 더욱 광범위한 반란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로 인해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16 위 부르키나파소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80**  
(79.740)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6**  
(75.641)

WWL2026-  
WWL2025

**4.1**

- 전체 점수는 4.1 점 상승했습니다. 폭력(violence) 점수는 15.6 점에서 16.1 점으로 증가했으며, 국가·교회·공동체 삶의 영역(National, Church and Community spheres of life) 전반에서도 압박(pressure)이 강화되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 지하디스트(jihadist) 활동으로 인해 최소 150 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고 100 개가 훨씬 넘는 교회가 파괴되거나 폐쇄되었습니다.

## 17 위 중국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9**

(79.030)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8**

(77.877)

WWL2026-  
WWL2025

**1.1**

- 중국의 점수는 주로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1 점 상승했습니다. 이 규제들은 2018 년부터 이어져 온 일련의 규칙에 추가된 것으로, 현재 엄격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영역에서의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 최신 규제는 외국인의 온라인 활동과 교회 지도자들의 사적인 온라인 활동, 특히 소셜 미디어 사용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추가적인 법적 제한들이 2026 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 보고 기간 이후에 발생한 다수의 가정 교회 급습과 교회 지도자 체포 사건은 WWL 2026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18 위 이라크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9**

(78.970)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8**

(77.597)

WWL2026-  
WWL2025

**1.4**

- 이라크의 전체 점수는 1 점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로 폭력 점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균 압박 점수는 0.2 점 상승에 그쳐 사실상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 폭력 점수는 6.1 점에서 7.2 점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살해 및 체포 사건의 증가에 기인했습니다.
-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세 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고, 최소 10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 19 위 몰디브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9**  
(78.564)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8**  
(77.793)

WWL2026-  
WWL2025

**0.8**

- 0.8 점 상승은 거의 모든 생활 영역, 특히 공동체 생활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압박의 작은 증가 때문이며, 이는 매우 점진적인 상승 추세 일부입니다.
- 몰디브 헌법은 시민들이 이슬람교 외의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교회 건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외국인 거주 기독교인에게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 2023 년에 집권한 이후, 무이주(Muizzu) 대통령이 이슬람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자국민 기독교인과 외국인 거주 기독교인 모두의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 무이주 대통령하에서 비이슬람 신앙과 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소외(marginalization)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국가는 교육, 금융, 법률, 모스크 건설 분야의 새로운 정책을 통해 수니파 이슬람을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 두고 눈에 띄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몰디브 정부는 교육, 금융, 법률 및 모스크 건설을 이슬람을 중심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니파 이슬람의 영향력은 사회 전체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 20 위 알제리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7**  
(77.204)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7**  
(77.460)

WWL2026-  
WWL2025

**-0.3**

- 전체 반올림 점수는 77 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폭력 점수는 6.3 점에서 4.8 점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주로 알제리의 모든 개신교 교회가 이미 수년 전에 폐쇄되어 보고 기간 새로운 교회 폐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폭력 점수는 내려갔지만, 다른 생활 영역에서 압박이 늘어나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 알제리 교회는 극도로 높은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폐쇄로 인해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 21 위 모리타니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6**  
(75.563)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4**  
(73.682)

WWL2026-  
WWL2025

**1.9**

- WWL 2026 점수가 1.9 점 상승했습니다.
- 여러 건의 공동체 폭력 및 국가 억압 사건으로 인해 폭력 점수가 2.8 점에서 3.7 점으로 증가했습니다.
- 이와 유사하게, 모든 생활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했으며, 특히 교회 생활에서의 압박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 모리타니 기독교인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 모두 극심한 압박에 직면하여, 교회는 매우 신중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22 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AR)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5**  
(75.372)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2**  
(71.969)

WWL2026-  
WWL2025

**3.4**

-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의 점수는 3 점 상승했으며, 이는 주로 국가 영역 점수가 9.583 점에서 12.431 점으로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이러한 증가는 중앙 정부 내 일부 요소를 포함하여 주요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권력 강화를 반영합니다.
- 기독교인들이 국가적 차원의 압박에 직면하는 주된 이유는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장 단체들이 넓은 지역을 통제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여행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정치적 반대자로 취급합니다.

- 학대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의 개입은 미흡한 실정이며, 재건축 및 구호 자원의 지역사회 분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압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23 위

## 모로코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5**  
(74.880)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4**  
(74.223)

WWL2026-  
WWL2025

**0.7**

- 전체 점수는(반올림) 1 점 상승했습니다.
- 압박 수준은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폭력 점수가 8.3 점에서 9.3 점으로 상승했습니다.
-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주민 교회들을 중심으로 예배 모임이 강제로 중단된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감시 및 심문이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24 위

## 쿠바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3**  
(73.402)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3**  
(73.057)

WWL2026-  
WWL2025

**0.4**

- 쿠바의 전체 WWL 점수는 73 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가족 영역 및 폭력 영역에서 약간의 증가가 있었음에도 평균 압박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12.8 점)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 신앙을 바탕으로 정권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독재 정부의 이해관계에 동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특히 비인가 교회(non-affiliated churches)의 지도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적대 행위가 있었습니다
- 억압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방식은 사회를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당국의 공산주의적 동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 보고 기간에는 교회에 대한 공격 사례 증가와 더불어 기독교인들이 압력받거나 강제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되었습니다.

## 25 위 우즈베키스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3**  
(72.577)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3**  
(73.133)

WWL2026-  
WWL2025

**-0.6**

- 전체 점수는 변동이 없었으나, 폭력 점수는 감소했습니다. 압박 점수는 공동체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소폭 상승했으며, 사생활, 가정생활, 국가 생활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특히 이슬람교 배경의 가족, 친구, 마을 주민들이 개종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며, 정부는 교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등록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경찰 단속, 위협, 체포 및 벌금으로 고통받았습니다.

## 26 위 니제르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2**  
(72.070)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2**  
(71.515)

WWL2026-  
WWL2025

**0.6**

- 니제르는 2025 년과 똑같은 점수(반올림 점수 기준)를 기록했습니다. 점수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압력과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인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폭력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살고 있으며, 특히 툴라베리(Tillabéri), 타후아(Tahoua), 디파(Diffa) 지역에서는 IS-사헬(IS-Sahel) 및 JNIM(이슬람 및 무슬림 지지 집단)이 살해, 납치, 마을 습격, 갈취, 도로 검문 및 심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교회, 기독교인 가정,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들은 친척과 공동체로부터 가장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3 년 쿠데타와 국가 역량의 약화로 인해 광대한 농촌 지역이 사실상 무장 단체 또는 범죄 조직의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신중하게 말하며, 보안군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끊임없는 인식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 27 위 타지키스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2**  
(71.672)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8**  
(68.228)

WWL2026-  
WWL2025

**3.5**

- WWL 2026 타지키스탄 점수인 72 점은 WWL 2025 대비 4 점 상승한 수치입니다. 평균 압박 점수는 WWL 2025 의 13.3 점에서 WWL 2026 에서는 13.7 점으로 증가했습니다.
- 사생활,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 국가 생활 영역에서 점수가 소폭 상승했으며, 교회 생활 영역에서는 거의 1 점 증가했습니다.
- 폭력 점수는 1.5 점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교회 파괴, 납치 사건 발생 증가, 그리고 강제 출국해야 하는 기독교인 수 증가 등의 요인에 기인합니다.

## 28 위 라오스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2**  
(71.567)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4**  
(73.701)

WWL2026-  
WWL2025

**-2.1**

- 라오스는 전체 점수에서 2 점 하락했습니다. 이는 폭력 점수가 9.8 점에서 7.4 점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 주로 교회 공격 보고 건수가 감소하고 살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 하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부 농촌 지역에서 성장함에 따라 마을 차원의 적대감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이유로 집을 떠나야 했던 기독교인의 수가 38% 증가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 공산당 당국은 모든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개종자들은 가족과 지역 지도자들로부터 압력과 폭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9 위 **콩고민주공화국(DRC)**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2**  
(71.517)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0**  
(69.868)

WWL2026-  
WWL2025

**1.7**

-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점수는 WWL 2025 보다 2 점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공동체 영역과 국가 영역에서의 압박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 기독교인들은 지방 당국과 공동체 행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간섭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통제가 취약한 지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 동부 지역에서 ADF(연합민주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은 폭력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마을을 공격하고, 남성과 여성을 납치하며, 교회를 불태우고, 전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살해 행위를 저지릅니다.
- 여성과 소녀들은 납치되어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집중적인 위협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관료적 장애물, 무장 단체의 폭력, 그리고 일관성 없는 국가 보호라는 복합적인 위협이 이 나라의 상승한 점수를 설명하며, 기독교 공동체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30 위 **멕시코**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1**  
(70.402)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1**  
(70.662)

WWL2026-  
WWL2025

**0.7**

- 멕시코의 WWL 전체 점수는 71 점으로 유지되었으나, 폭력 점수는 14.6 점에서 15.4 점으로 상승했습니다.
- 이러한 폭력 점수의 증가는 주로 기독교인 투옥, 성희롱, 기독교인 소유 사업체 공격, 외부 강제 이주 등 이전 연도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던 항목들에서 사건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WWL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살해된 기독교인의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다른 여러 범주의 폭력 사건은 감소했습니다.
- 교회가 범죄 활동에 대한 장애물 또는 위협 요소로 인식될 경우, 해당 교회는 범죄 조직의 지속적이고 빈번한 공격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멕시코에서는 여러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우려스러운 수준의 거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세속주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은 기독교 표현에 관한 불관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평균 압박 점수는 11.2 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여러 생활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지속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합니다.

## 31 위 튀니지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1**  
(71.335)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0**  
(70.153)

WWL2026-  
WWL2025

**1.2**

- 전체 점수가 1.2 점 상승했습니다. 튀니지가 독재로 회귀하면서 교회는 감시가 강화되었고, 특히 외국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가 늘어났습니다.
- 상승세는 교회 생활 영역에서의 압박과 폭력 점수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폭력 점수는 8.1 점에서 8.7 점으로 상승했습니다.
- 튀니지 기독교인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인들의 여러 교회 모임이 급습을 당하거나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 없고 보통 신앙을 숨기기로 선택하는 튀니지 개종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이 높아졌습니다.

## 32 위 니카라과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1**  
(70.650)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1**  
(70.801)

WWL2026-  
WWL2025

**-0.2**

- 니카라과의 전체 점수는 71 점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폭력 점수 감소(9.6 점에서 9.1 점으로)로 인해 총점은 소폭 하락했지만, 이는 공동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의 아주 조금씩 높아져서 이 감소 효과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 보고 기간 동안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사건의 수나 공개적인 주목도 면에서 이전 해들보다 덜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독재 정권은 정치적 충성을 표명하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더욱 적대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일을 강화했습니다.
- 이는 교회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 사이에 자체 검열을 조장함으로써 교회를 침묵시키려는 압박이 점점 더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러한 흐름은 WWL 2026 에서 평균 압박 점수가 이전 보고 기간의 12.2 점에서 12.3 점으로 매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33 위 **방글라데시**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1**  
(70.567)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4**  
(73.569)

WWL2026-  
WWL2025

**-3.0**

- 방글라데시의 전체 점수는 3 점 하락했습니다.
- 이는 2024 년 8 월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축출된 이후 임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가 비교적 안정을 찾았고, 그 결과 폭력 점수가 16.1 점에서 12.8 점으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 보고 기간 동안 살해, 교회 공격, 체포가 줄었고, 기독교인 재산 피해도 감소했습니다.
- 반면,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에서의 점수 상승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과 위협이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 국가 생활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진 것은 임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안정과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정을 가져왔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2026 년 2 월로 예정된 선거를 통해 이슬람주의 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몇 년 안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협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34 위 부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1**  
(70.548)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9**  
(69.213)

WWL2026-  
WWL2025

**1.3**

- 전체 점수는 1.3 점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로 폭력 점수가 WWL 2025 의 2.2 점에서 3.5 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더 많은 가정 교회 폐쇄 및 체포 사건이 포함됩니다.
- 기독교인은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종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동료 시민들로부터 자주 배척당하고, 당국으로부터 공식 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기독교인 자녀들 역시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일이 잦습니다.

## 35 위 투르크메니스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1**  
(70.535)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1**  
(70.893)

WWL2026-  
WWL2025

**-0.4**

- WWL 2025 보다 기록된 폭력 사건이 적었음에도 전체 점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적인 편으로, 국가 내 일부 압박과 폭력 영역에서만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개인과 가정의 삶에서는 이슬람과 씨족 중심의 압박이 강하고, 국가와 교회 영역에서는 독재 정권의 통제가 두드러집니다. 국가 기관 요원들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가족, 친구, 마을 사람들은 개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 36 위 에티오피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0**  
(70.228)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0**  
(70.228)

WWL2026-  
WWL2025

**-4.8**

- 에티오피아는 70 점으로 WWL 2025 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박해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압박 수준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지역 권력 구조, 민족 간 긴장, 그리고 여러 무장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치안 공백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 특히 무장 단체들이 처벌 없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기독교인 납치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이고 매우 불안정한 패턴이 되었습니다.
- 분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협박과 이동 제한, 주기적인 공격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은 취약한 공동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역량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지역 분쟁, 분열된 통치 구조, 표적 납치, 그리고 지역적 적대감이 서로 겹쳐 작용하면서 에티오피아의 점수를 70 점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 37 위 카메룬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0**  
(70.219)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7**  
(66.595)

WWL2026-  
WWL2025

**3.6**

- 카메룬의 종합 점수는 3 점 상승했는데, 이는 주로 국가 영역(National sphere)에서의 압박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역의 점수는 8.4 점에서 11.84 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 이러한 큰 변화는 정부와 지방 권력이 교회에 더 많은 압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 기간에 교회들은 정부의 생각과 정책에 맞추도록 요구받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교회가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현실을 보여줍니다.
- 이미 활동하던 단체들, 특히 정부가 아닌 무장 단체나 지역 세력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같은 정도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사람들과 교회에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38 위 오만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0

(70.032)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70

(70.265)

WWL2026-  
WWL2025

-0.2

- 오만은 전체 종합 점수 70 점을 유지했습니다. WWL 2026 기간 동안 전례 없이 많은 외국인 기독교인이 전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국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고된 폭력 사건 보고가 줄어들면서 폭력 점수는 3.0 점에서 2.2 점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소는 국가 영역과 교회 영역에서의 압박이 증가하면서 일부 줄었습니다.
- 오만 시민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와 가족, 사회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독교 공동체는 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나, 예배 시설은 엄격히 제한되고 감시받으며, 어떤 형태의 전도 활동도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39 위 모잠비크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9

(68.681)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8

(68.496)

WWL2026-  
WWL2025

-4.8

- 모잠비크의 점수는 1 점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전적으로 폭력 영역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북부 지역의 지속적인 불안정을 반영합니다.
- 모잠비크의 기독교인들은 여러 겹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지역에서는 IS-모잠비크(IS-Mozambique, 일명 아흘루-순나 왈-자마아, ASWJ)로 알려진 반군 단체가 주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반복적인 공격, 마을 습격, 납치,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강압적 통제로 책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주(州)의 광범위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표적이 되는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 반군의 활동 외에도, 기독교인들은 조직적인 부패와 범죄, 그리고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따라 종교 공동체는 곳곳에서 압박받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 없이 행동하는 일부 지방 권력이나 범죄 조직의 간섭으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40 위 키르기스스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8**  
(68.190)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6**  
(66.271)

WWL2026-  
WWL2025

**1.9**

- WWL 2026 에서 전체 점수는 1.9 점 상승했습니다. 폭력 점수는 6.9 점에서 7.5 점으로 상승했으며, 평균 압박 점수는 11.9 점에서 12.1 점으로 증가했습니다.
- 무슬림 가족, 친구, 마을 주민들은 개종자들에게 압력을 가하지만, 정부는 교회 활동에 많은 제약과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제 기관을 벗어난 종교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금된 기독교인의 수는 줄었지만, WWL 2025 에 비해 집을 떠나거나 나라를 떠나야 했던 기독교인과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성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박해 사건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 41 위 튀르키예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8**  
(68.086)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7**  
(66.515)

WWL2026-  
WWL2025

**1.6**

- 튀르키예의 전체 종합 점수는 1.6 점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로 폭력 점수가 5.4 점에서 6.7 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더 많은 교회가 총격받거나 훼손되는 공격을 당했으며, 여러 교회가 지방 당국이나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 또한 많은 외국인 기독교인이 계속해서 보안 코드 부여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 본인과 가족들이 사실상 튀르키예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튀르키예 교회에 가해지는 압박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42 위 이집트

| WWL 2026<br>(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 WWL 2025<br>(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 WWL2026-<br>WWL2025 |
|---------------------------|---------------------------|---------------------|
| <b>68</b><br>(67.857)     | <b>68</b><br>(68.178)     | <b>-0.3</b>         |

- 종합 점수는 반올림 기준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폭력 점수는 6.3 점에서 5.7 점으로 하락했습니다.
- 전반적으로 종파 간 폭력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진정한 공존의 결과라기보다 국가의 강압적인 통제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 한편 개인 영역과 국가 영역의 점수는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증오 발언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특히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발언과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강한 압박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43 위 코모로

| WWL 2026<br>(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 WWL 2025<br>(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 WWL2026-<br>WWL2025 |
|---------------------------|---------------------------|---------------------|
| <b>68</b><br>(67.648)     | <b>67</b><br>(67.093)     | <b>0.6</b>          |

- 코모로의 종합 점수는 반올림 기준으로 1 점 상승했으며, 이는 폭력 영역 점수가 2.593 점에서 3.148 점으로 소폭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반적인 환경은 여전히 이 나라의 보수적인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수니파 이슬람 외의 공개적인 설교나 종교적 표현은 제한되며,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들은 지역사회로부터 강한 압박과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으면 지방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 이러한 상황은 공개적인 예배를 어렵게 만들고, 대부분의 기독교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눈에 띄는 신앙 표현은 실제적인 위험을 만듭니다.

## 44 위 카타르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7**  
(67.417)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7**  
(67.232)

WWL2026-  
WWL2025

**0.2**

- 전체 종합 점수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평균 압박은 13.3 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폭력 점수는 1 점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 토착민 출신과 이주민 출신 개종자 모두 신앙을 살아내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종자들은 정부와 사회, 그리고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계속해서 제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독교 공동체는 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으나, 예배 시설은 제한되고 감시받으며, 전도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45 위 카자흐스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7**  
(66.722)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8**  
(68.383)

WWL2026-  
WWL2025

**-1.7**

- WWL 2026 의 점수 67 점은 WWL 2025 보다 1 점 하락했습니다.
- 교회 생활 영역에서 극심한 수준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평균 압박은 동일한 수준(12.8 점)으로 유지됐지만, 폭력 점수는 4.3 점에서 2.8 점으로 하락했습니다.
- 그런데도, WWL 2025 때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 46 위 네팔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7**  
(66.596)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3**  
(63.200)

WWL2026-  
WWL2025

**3.4**

- WWL 2026 의 점수 67 점은 WWL 2025 보다 4 점 높은 수치입니다.
- 평균 압박 점수는 WWL 2025 의 11.5 점에서 WWL 2026 에는 11.8 점으로 상승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상승은 폭력 사건 보고에서 나타났는데, 해당 점수는 WWL 2025 의 5.9 점에서 WWL 2026 에는 7.6 점으로 올랐습니다.
- 교회 공격, 기독교인 체포, 기독교인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개인 생활, 가정생활, 공동체 생활, 국가 생활에서도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 47 위 콜롬비아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6**  
(66.296)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6**  
(66.272)

WWL2026-  
WWL2025

**0.0**

- 콜롬비아의 WWL 전체 점수는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평균 압박은 10.7 점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폭력 점수는 12.8 점으로 아주 미세하게 상승했지만, 이는 특정 토착민 거주 지역에서 기독교 관련 시민 행사(예: 출생 또는 결혼) 등록에 대한 장애가 적게 보고되면서 가족 영역의 압력 점수가 약간 감소하여 상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측면에서 기독교인(특히 개종자)에 대한 적대감은 일부 토착 공동체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사회적 배제, 위협, 기타 형태의 위협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 범죄 단체들은 여전히 국토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며, 보고 기간 폭력이 더 심화했습니다.
- 공식적으로 기록된 기독교 지도자 살해 사건은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조직적인 부패 및 범죄 세력이 이 나라 교회의 주요 위협으로 남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세속적인 영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신앙 기반의 표현에 대한 불관용 환경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표명하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48 위 차드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6**  
(66.296)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6**  
(66.272)

WWL2026-  
WWL2025

**0.2**

- 차드의 점수는 반올림했을 때 1 점 상승했습니다. 실제로는 0.2 점의 작은 상승이며, 이는 폭력 영역에서 아주 약간의 증가를 반영합니다.
- 차드의 기독교인들은 여러 방향에서 압박받고 있습니다. 즉, 취약한 공공기관, 일관성 없는 지방 행정, 그리고 차드 호수 분지에 무장 이슬람 무장 단체의 확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 교회들은 폐쇄, 토지 분쟁, 그리고 활동을 방해하는 임의적인 규제 결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남서부 및 기타 농촌 지역에서는 무장 목축 집단이 기독교인 농부들을 자주 표적으로 삼아 토지 강탈, 농작물 파괴, 그리고 공동체를 이주로 몰아넣는 주기적인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복합적인 위협들은 기독교 생활이 지속적인 주의와 회복력을 요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49 위 요르단

WWL 2026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5**  
(65.309)

WWL 2025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65**  
(64.900)

WWL2026-  
WWL2025

**0.3**

- 전체 점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65 점입니다.
- 평균 압박은 12.5 점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에 유지했으나, 폭력 점수는 2.4 점에서 2.8 점으로 상승했습니다.
- 살해 사건이 1 건 발생했으며, 더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집이나 심지어 나라를 떠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반면, 구금된 기독교인 보고는 더 적었습니다.
- 요르단의 대다수 기독교인은 정교회나 로마 가톨릭교회에 속하며, 이들은 때때로 고용상의 차별이나 공개적인 전도에 관한 제약을 가집니다.

- 하지만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것은 구타, 체포, 심지어 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도 활동을 하거나 개종자를 돕는 기독교인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위협과 방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             |                           |                           |                     |
|------|-------------|---------------------------|---------------------------|---------------------|
| 50 위 | <b>브루나이</b> | WWL 2026<br>(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 WWL 2025<br>(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 WWL2026-<br>WWL2025 |
|      |             | <b>65</b><br>(65.255)     | <b>66</b><br>(65.832)     | <b>-0.6</b>         |

- 전체 반올림 점수는 1 점 하락했습니다.
- 폭력 점수가 아주 미세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생활 영역의 압박 점수가 1 점 감소했습니다.
- 기독교인 및 기타 종교적 소수자들은 샤리아(Sharia) 율법하에서 상당한 압박과 징벌적 조치에 직면하고 있으며, 극도로 높은 수준의 자기 검열이 존재합니다.
-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본래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강요받는 특별 표적이 됩니다.

\* 50 위 밖으로 박해 순위가 떨어진 이유

|      |            |                           |                           |                     |
|------|------------|---------------------------|---------------------------|---------------------|
| 55 위 | <b>베트남</b> | WWL 2026<br>(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 WWL 2025<br>(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 WWL2026-<br>WWL2025 |
|      |            | <b>64</b>                 | <b>67</b>                 | <b>-2.9</b>         |

- WWL 2026 에서 전체 점수는 3 점 하락했습니다. 이는 살해나 교회 공격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폭력 점수가 5.9 점에서 2.6 점으로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 하지만 정부가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박해가 가족 및 마을 차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등 괴롭힘의 지역화가 증가하여 평균 압박 점수는 12.2 점으로 아주 미세하게 상승했습니다.
- 특히 지방 당국은 중앙 고원의 비전통적인 개신교인과 소수 민족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 한편, 공산당 정부는 지역 박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며, 종교 위원회(Committee on Religious Affairs)를 통해 모든 등록된 교회 및 종교 활동을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 2026 WWL 국가별 박해 현황(1-15 위)

이 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보고 기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측정된 분야는 6개로 개인, 가족, 공동체, 국가, 교회, 폭력을 조사했습니다.

| WWL 2026 순위 | 국가       | 총점 (Total WWL 2026 Score) | WWL 2025 대비 점수 변동 |
|-------------|----------|---------------------------|-------------------|
| 1           | 북한       | 97                        | -0.5              |
| 2           | 소말리아     | 94                        | 0.4               |
| 3           | 예멘       | 93                        | -0.7              |
| 4           | 수단       | 92                        | 2.4 (상승)          |
| 5           | 에리트레아    | 90                        | 1.1 (상승)          |
| 6           | 시리아      | 90                        | 12.0 (가장 큰 폭 상승)  |
| 7           | 나이지리아    | 89                        | 0.6               |
| 8           | 파키스탄     | 87                        | -0.6              |
| 9           | 리비아      | 87                        | -4.8 (가장 큰 폭 하락)  |
| 10          | 이란       | 87                        | 0.2               |
| 11          | 아프가니스탄   | 86                        | 0.5               |
| 12          | 인도       | 84                        | -0.1              |
| 13          | 사우디 아라비아 | 82                        | 1.2               |
| 14          | 미얀마      | 81                        | 0.2               |
| 15          | 말리       | 81                        | 1.1               |

# WWL 2026 폭력 관련 항목

41 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모든 국가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폭력에 대한 데이터  
2024. 10. 1. – 2025. 9. 30.까지

## WWL 2026의 전체 폭력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요약 설명

-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 총수는 WWL 2025의 4,476 건에서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4,849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다양한 형태로 공격받은 교회 또는 기독교 공공 재산 총수는 WWL 2025의 7,679 건에서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3,632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 신앙 때문에 구금된 기독교인 총수는 WWL 2025의 3,604 건에서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3,414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 신앙 때문에 선고받은 기독교인 총수는 WWL 2025의 1,140 건에서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1,298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신앙 관련 이유로 납치된 기독교인 총수는 WWL 2025의 3,775 건에서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3,302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 신앙 관련 이유로 강간 또는 기타 성적 괴롭힘을 당한 기독교인 사례는 WWL 2025의 3,123 건에서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4,055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트라우마 및 문화적 금기 문제로 인해 보고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 비(非)기독교인과의 강제 결혼 사례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수는 WWL 2025 의 821 건에서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1,147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신앙 관련 이유로 기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구타 및 살해 위협 포함)를 당한 기독교인 사례는 WWL 2025 의 54,780 건에서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67,843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 및 기타 급진 종교 단체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과 공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WWL 2025 에서는 기독교인의 주택 또는 기타 재산(상점 제외)이 공격당한 사례가 20,084 건이었으나,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17,609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 기독교인의 상점 또는 사업체가 공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수는 WWL 2025 의 8,284 건에서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8,185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 폭력과 압력(특히 개종자들이 집과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경우)으로 인해, 신앙 관련 이유로 주택을 떠나거나 국내에 숨도록 강요받은 기독교인 수는 WWL 2025 의 183,709 건에서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201,427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박해 때문에 국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신앙 관련 이유로 출국하도록 강요받은 기독교인 수는 WWL 2025 의 26,062 건에서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22,702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 설문조사 블록 6 질문과 WWL 비교에 대한 요약 데이터

본 개요표는 WWL 2026 보고 기간 발생한 기독교인 대상 폭력의 파괴적인 영향과 이전 WWL 과의 비교를 제시합니다.

또한, 모든 WWL 보고서가 그렇듯이, 여기에 포함된 폭력 데이터는 절대적인 최소 수치입니다. 실제 피해는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블록 6<br>폭력 관련<br>질문   | 2026         | 2025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
| <b>6.1</b><br>신앙과<br>관련하여<br>살해된<br>기독교인 수                      | <b>4,849</b> | 4,476 | 4,998  | 5,621 | 5,898 | 4,761 | 2,983 |
| <b>6.2</b><br>공격받은<br>교회 또는<br>기독교 공공<br>재산                     | <b>3,632</b> | 7,679 | 14,766 | 2,110 | 5,110 | 4,488 | 9,488 |
| <b>6.3 and 6.4</b><br>재판 없이<br>구금, 체포,<br>선고 및<br>투옥된<br>기독교인 수 | <b>4,712</b> | 4,744 | 4,125  | 4,542 | 6,175 | 4,277 | 4,811 |
| <b>6.5</b><br>납치된<br>기독교인 수                                     | <b>3,302</b> | 3,775 | 3,906  | 5,259 | 3,829 | 1,710 | 1,052 |

|  |              |       |       |       |  |  |  |
|--|--------------|-------|-------|-------|--|--|--|
| <b>6.6 and 6.7</b><br>강간 또는<br>기타 성적<br>괴롭힘을<br>당했거나 비<br>기독교인과<br>의 결혼을<br>강요받은<br>기독교인 수 | <b>5,202</b> | 3,944 | 3,231 | 2,843 |  |  |  |
|--|--------------|-------|-------|-------|--|--|--|

| <b>블록 6</b><br>폭력 관련<br>질문   | <b>2026</b>    | 2025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
| <b>6.8</b><br>기타 신체적<br>또는 정신적<br>학대를 당한<br>기독교인<br>수(구타 및<br>살해 위험<br>포함)   | <b>67,843</b>  | 54,780  | 42,849  | 29,411  |      |      |      |
| <b>6.9 and 6.10</b><br>공격받은<br>기독교인의<br>주택, 상점,<br>사업체 또는<br>기타 재산           | <b>25,794</b>  | 28,368  | 27,171  | 6,757   |      |      |      |
| <b>6.11 and 6.12</b><br>주택을<br>떠나거나<br>국내에<br>숨거나<br>출국하도록<br>강요받은<br>기독교인 수 | <b>224,129</b> | 209,771 | 295,120 | 139,307 |      |      |      |

# WWL 2026 국가별 종교 통계 - 가나다순

WWL 2026 에 사용된 WCD 데이터 출처: Gina A. Zurl,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레이던(Leiden)/보스톤(Boston): Brill 출판사, 2025 년 4 월 자료열람

## WWL 2026 상위 50 개국 - 가나다순

| WWL 2026 순위 | 국가명   | 총인구<br>(WCD 가 집계한<br>UN 2024 년<br>추정치;2025 년 4 월<br>자료) | 기독교인 수<br>(WCD, 2025 년<br>4 월 자료) | 기독교인 수<br>(OD 추정치) |
|-------------|-------|---|-----------------------------------|--------------------|
| 7           | 나이지리아 | 234,574,000   | 107,275,000                       |                    |
| 32          | 나카라과  | 7,237,000   | 6,832,000                         |                    |
| 46          | 네팔    | 31,577,000  | 1,480,000                         |                    |
| 26          | 니제르   | 29,316,000  | 74,900                            |                    |
| 28          | 라오스   | 7,838,000   | 219,000                           |                    |
| 9           | 리비아   | 7,038,000   | 36,300                            |                    |
| 15          | 말리    | 24,759,000  | 867,000                           |                    |
| 30          | 멕시코   | 130,301,000   | 124,066,000                       |                    |
| 23          | 모로코   | 38,571,000  | 37,400                            |                    |
| 21          | 모리타니아 | 5,128,000   | 11,100                            |                    |
| 39          | 모잠비크  | 35,835,000  | 19,937,000                        |                    |
| 19          | 몰디브   | 515,000   |                                   | 백여명                |
| 14          | 미얀마   | 55,337,000  | 4,632,000                         |                    |

|    |          |               |            |            |
|----|----------|---------------|------------|------------|
| 33 | 방글라데시    | 176,422,000   |            | 950,000    |
| 34 | 부탄       | 797,000       | 19,300     |            |
| 1  | 북한       | 26,320,000    |            | 400,000    |
| 50 | 브루나이     | 459,000       | 53,000     |            |
| 16 | 브루키나 파소  | 24,437,000    | 6,124,000  |            |
| 13 | 사우디 아라비아 | 37,990,000    | 2,295,000  |            |
| 2  | 소말리아     | 19,282,000    |            | 백여명        |
| 4  | 수단       | 50,615,000    | 2,201,000  |            |
| 6  | 시리아      | 25,427,000    |            | 300,000    |
| 11 | 아프가니스탄   | 44,516,000    |            | 천여명        |
| 20 | 알제리      | 46,922,000    | 156,000    |            |
| 5  | 에리트레아    | 3,890,000     | 1,713,000  |            |
| 36 | 에티오피아    | 132,939,000   | 81,388,000 |            |
| 3  | 예멘       | 36,000,000    |            | 매우 소수      |
| 38 | 오만       | 4,781,000     | 191,000    |            |
| 49 | 요르단      | 11,442,000    |            | 170,000    |
| 25 | 우즈베키스탄   | 36,159,000    | 395,000    |            |
| 18 | 이라크      | 47,550,000    |            | 187,000    |
| 10 | 이란       | 90,411,000    |            | 800,000    |
| 42 | 이집트      | 116,275,000   | 10,184,000 |            |
| 12 | 인도       | 1,454,607,000 | 72,326,000 |            |
| 17 | 중국       | 1,424,382,000 |            | 96,700,000 |

|    |                  |             |             |  |
|----|------------------|-------------|-------------|--|
| 22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6,097,000   | 4,470,000   |  |
| 48 | 차드               | 19,426,000  | 5,998,000   |  |
| 37 | 카메룬              | 30,151,000  | 17,443,000  |  |
| 45 | 카자흐스탄            | 20,056,000  | 3,594,000   |  |
| 27 | 카지리크산            | 10,517,000  | 55,000      |  |
| 44 | 카타르              | 2,757,000   | 390,000     |  |
| 43 | 코모로              | 883,000     | 4,600       |  |
| 47 | 콜롬비아             | 52,611,000  | 49,876,000  |  |
| 29 | 콩고민주공화국<br>(DRC) | 109,076,000 | 104,159,000 |  |
| 24 | 쿠바               | 11,153,000  | 6,874,000   |  |
| 40 | 키르기즈스탄           | 6,943,000   | 207,000     |  |
| 35 | 투르크메니스탄          | 6,677,000   | 95,000      |  |
| 31 | 튀니지              | 12,666,000  | 23,000      |  |
| 41 | 튀르키예             | 86,696,000  | 251,000     |  |
| 8  | 파키스탄             | 249,949,000 | 4,785,000   |  |

#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sup>1</sup>의 선교 전략적 의미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

## 1. 들어가는 말

선교사 파송 중심의 한국 선교는 2020년을 정점으로 점차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교사의 연령도 50대 이상이 69.25%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이것은 향후 20년, 한국 선교의 실상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지금도 위기의식을 지닌 한국 선교계는 다양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24년 11월 해운대 포럼에서 한국 선교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인 'New Target 2030'을 제안하였다.<sup>3</sup> 이러한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현지 교회와 함께하는 동반자 선교'이다. 그러나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어떻게(How?)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바로 이 부분에 오픈도어가 한국교회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

## 2. 오픈도어 핵심가치

국제오픈도어 사역은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2008년에 오픈도어 사역 철학을 정리했다. 이것이 오픈도어의 모든 사역자가 가슴에 새기는 7가지 핵심 가치이다.<sup>4</sup>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두 번째 핵심 가치이다.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sup>5</sup> 국제오픈도어 2대 총재인 요한 컴패년(Johan Compañen)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sup>1</sup> World Watch List, 직역하면 세계감시목록이 되지만, 오픈도어는 의미의 전달에 중점을 두어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로 번역하고, 한글로 월드와치리스트와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sup>2</sup> 한국선교연구원, 2024 한국 선교 현황 3.1.1 장기 선교사 연령 분포, <https://krim.org/2024-korean-mission-statistics/>

<sup>3</sup> <https://kwma.org/projects/> KWMA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선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4가지 영역에서 정리하였는데, 1) 글로벌 사우스와 동역하는 선교운동, 2)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과 액션플랜, 3) 미래세대, 4) 디지털 선교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sup>4</sup> 오픈도어 7대 핵심 가치, 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2.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3.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4.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5.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7.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up>5</sup> We are Persecuted Church driven. 원문을 보면 박해받는 교회가 우리의 사역을 주도한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드러난다.

첫째는 박해받는 교회가 우리의 사역을 지도하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을 현지 교회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들의 필요와 요청을 듣고 기도 가운데 그 요청에 대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더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핍박받는 교회를 위한 주님의 요청에 반응하여 일을 결정하며, 주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심을 믿는다.<sup>6</sup>

### 3. 월드와치리스트의 역할

오픈도어는 철의 장막인 공산권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현지 교회의 다양한 필요에 응답해 왔다. 중국에 1 백만 권의 성경을 전달한 진주 작전<sup>7</sup>과 소련을 위한 7 년 기도 운동 등이 그것이다. 1991 년 12 월 26 일 소련이 무너지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에 사역을 집중했던 오픈도어는 사역의 방향을 수정해야만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했다. 동유럽의 박해받는 교회가 사라졌다. 이젠 전략을 수정하여 여타 선교 기관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전통 선교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남은 바 죽게 된 자를 굳건하게 하라"(계 3:2)는 오픈도어의 소명을 따라 새로운 사역지를 찾을 것인가?

이 시대적 전환기에 오픈도어는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기보다 소명에 충실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전세계에 오픈도어가 섬길 박해를 받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이하 WWL)이다. 지난 30 년간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 사역의 방향을 지시해 왔다. 1993 년 오픈도어 현장 선교사와 리더십은 이 박해지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사역지로 등장했고,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까지 확장되었다.<sup>8</sup> 그리고 지금은 매년 120 여 개국의 기독교 신앙의 박해 정도를 국가 단위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연례보고서로 성장했다.

### 4. 월드와치리스트의 보고자료

월드와치리스트는 매년 1 월 연례보고서를 통하여 여러 다양한 자료를 발표한다. 우선 지난 1 년간

<sup>6</sup> 오픈도어선교회 핵심 가치 7, 2008, p. 21.

<https://www.opendoors.or.kr/board/list.do?iboardgroupseq=2&iboardmanagerseq=59>

<sup>7</sup> 진주 작전은 1981 년 6 월 18 일 하룻밤에 1 백만 권의 성경을 중국 남동부 해안을 통해 반입한 사건이다. 그 상세한 과정은 하나님의 부르심(브라더 앤드류, 조이출판사, p139-177)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sup>8</sup> 월간오픈도어 2023 년 2 월호, 월드와치리스트의 멋진 30 년, p.9-10. 기독교 박해지수는 후원자들의 인식과 기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환상적인 도구였다. 또한 박해가 현존하는 모든 나라에서 오픈도어 사역이 시작되도록 견인했다.

수집된 자료를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박해가 높은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81 개국의 리스트를 발표한다. 그리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상위 50 개국의 분포를 나타낸 세계 기독교 박해 지도를 제작한다. 또한 박해 동향, 언론용 보도자료, 폭력 관련 문서, 특수 종교 박해 유형 등 다양한 보고서가 동시에 발표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선교사 혹은 목회자들이 주목할 만한 국가별 분석 자료이다. 이 문서는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할 때 각 나라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월드와치리스트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WWL 방법론, 박해 역학, 국가별 분석 자료 전문 등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이러한 모든 자료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다.<sup>9</sup> 한국교회 선교 기관의 정책 입안, 선교 연구, 선교사 훈련에 있어 특히 유용하다.

특히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목회하는 목사들에게는 박해와 선교 현장과 50 일 기도 자료가 특히 유익하다. 이 두 자료는 박해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인도자들을 위해 제작되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기본적 정보-인구, 기독교인 비율, 역사적 교회 배경, 박해 상황, 특성별 박해유형 등을 개괄하고 있다. 이는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 채널<sup>10</sup>을 통해 매주 오픈도어 위클리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 5. 종단적(End-to-End) 선교 전략 구축

국제오픈도어는 월드와치리스트를 통해 조사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해받는 교회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현지 교회 중심의 선교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2020 년부터 5 년 단위로 3 단계 전략을 마련했는데, 1 단계 전략이 바로 일관된 종단적 사역 전략 구축(Create a unified end-to-end ministry)이다. 오픈도어 선교 전략은 한국교회에 낯선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회에 익숙한 선교사 파송 중심의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박해받는 교회 즉 현지 교회 중심의 선교 전략을 사용한다. 그리고 글로벌 교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현지 교회와 하나로 통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단계마다 성숙한 리더십과 전문화된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인식과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

종단(终端)적 선교 전략을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북한, 이란, 나이지리아 등의 박해받는 교회 성도 한 사람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혹은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와 박해 현장의 지역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기 위하여

<sup>9</sup> <https://www.opendoors.org/en-US/research-reports/> 이 사이트에는 월드와치리스트 관련 대부분의 영문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한국어 자료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https://www.opendoor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up>10</sup> [https://pf.kakao.com/\\_xhYVKb](https://pf.kakao.com/_xhYVKb)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 채널은 매일 박해 현장을 위한 기도 요청들이 배달된다. 그리고 채널 추가자들에게 매주 오픈도어 공식 모바일 매거진 오픈도어 위클리가 발송된다. 박해와 선교 현장, 박해 뉴스, 현장 스토리, 기도 영상, 선교회 소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픈도어 사역자의 전문성과 역할의 명확성, 공개 혹은 비밀 유지, 통합재정 운영, IT 기술의 효율적 적용<sup>11</sup>에 대한 전략이 실행되어 왔다.

오픈도어 기도 용사들은 이미 이 효능감을 경험했다. 오늘 곧바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교회의 긴급한 기도 요청을 받고 함께 마음을 쏟아 기도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인질들이 석방되었다는 모든 과정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sup>12</sup> 이제 더 이상 선교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현지 교회의 고통과 슬픔, 기쁨과 환희를 함께 느끼며 한 몸임을 확인하고 있다.

## 6. 한국오픈도어의 동반자 선교전략

국제오픈도어의 종단적(End-to-End, 终端的) 선교 전략이 한국교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선 월드와치리스트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바와 같이 월드와치리스트(WWL)가 '현지 교회의 목소리'라면, 이를 바탕으로 기획된 프로젝트<sup>13</sup>는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개발 지역(협력)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이다. 한국교회가 이 프로젝트들과 효과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해마다 발표되는 월드와치리스트 즉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박해 현장의 성도들이 전해주는 믿음과 용기가 오롯이 한국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자각하고 깨어 일어나 선교적 교회로 재무장되는 계기가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이 자료를 어떻게 지역교회에서 사용할 것인가라는

---

<sup>11</sup> 양 종단을 연결하기 위해 IT 기술이 세밀하게 네트워킹되었다. 2022 년에 전 세계 오픈도어 모든 사역자들-필드와 개발 지역(후원교회)-이 어디에서나 실시간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것은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교회에서 어제 일어난 일이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sup>12</sup> 2025 년 11 월 21 일 나이지리아 북서부 니제르주에서 303 명의 학생들과 12 명의 교사들이 납치되는 역사상 가장 큰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11 월 24 일, 이 소식은 국제오픈도어 인터넷에 긴급 기도 요청으로 올라왔다. 12 월 9 일 한국오픈도어는 화요기도 모임에 이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12 월 22 일 모든 납치된 인질들이 석방되었고, 23 일 곧바로 이 소식이 올라왔다. 한국오픈도어는 12 월 30 일 화요기도 모임에서 석방 소식을 나누며 함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sup>13</sup> 현재 오픈도어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현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성경 전달, 지도자 훈련, 어린이 청소년 사역, 여성 보호, 사회경제적 개발, 난민과 변호사 역 등 그 분야가 심히 광대하다. 목표는 박해받는 교회를 믿음에 굳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선교 전략적 접근이 체계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 위에 선교의 주인 되신 성령의 감동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자각을 기초로 오픈도어와 한국교회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결 방안을 5 단계로 제안하고 싶다.

### 1 단계: 온-오프라인 기도 네트워크(Live Connection)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의 불길을 일으킨다. 박해 현장의 긴급한 필요와 지역교회의 기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영적 하나 됨을 경험한다. 또한 IT 기술의 결합을 통해 시공간적 간격을 좁히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간다.

- **긴급 기도 알람 서비스:** 박해 현장에서 긴급 사건(체포, 테러 등)이 발생했을 때, 오픈도어의 앱이나 카카오톡 채널, 주간 레터를 통해 교회의 기도 모임에 즉각 공유하는 '실시간 중보기도' 체계를 구축한다.<sup>14</sup> 필요한 경우 오픈도어 사역 대변인을 직접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현장 소식을 직접 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현지 상황의 긴박함을 공감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자각하여 영적 하나 됨을 경험케 한다.
- **희망의 선물(Gifts of Hope):** 성탄절이나 절기 때 성도들이 직접 프로젝트(예: 성경 1 권 보내기, 염소 한 마리 선물하기 등)를 선택해 후원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활성화한다.

### 2 단계: 'WWL 기반'의 목회적 콘텐츠 활용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WWL 의 자료가 목회자들을 통하여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실제로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오픈도어의 연구 보고서를 교회 교육 시스템과 결합하여 성도들의 선교적 DNA 를 깨우는 것이다. 오픈도어는 목회자들이 현지 교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오픈도어 위클리<sup>15</sup>라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선교주일을 구상해 볼 수 있다.

- **오픈도어 선교주일(Open Doors Sunday):** 매년 WWL 발표 시점에 맞춰 '박해받는 교회주일'로 지키고, 오픈도어에서 제공하는 현장 영상과 간증 자료를 설교 및 주일학교<sup>16</sup>에

---

<sup>14</sup> 한국오픈도어는 실시간 중보기도 체계로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기도 영상 등을 통하여 구축했으며, 박해받는 현지 교회와 한국교회와의 문화적 간극을 줄여가고 있다. 실시간 중보기도 체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기도 용사들을 훈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픈도어 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sup>15</sup> 2025 년 12 월까지 126 호가 발행되었으며, 매주 금요일 발행되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WWL 자료 기반의 박해와 선교 현장, 박해 뉴스, 박해 스토리, 기도 영상 등을 수록하고 있다.

<sup>16</sup> 어린이 기도 여권, 어린이 박해 지도는 주일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이다. 교사들의 준비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 박해지도 세미나가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박해 지도를 활용한 주일학교의 사례가 다수 있다. 참여한 어린이들의 소감도 보유하고 있다.

활용한다.

- **고난의 신학 회복:** 번영 신학에 익숙해진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 현장의 보고서를 통해 신앙의 본질과 제자도를 가르치는 **제자 훈련 교재**로 활용한다.

### 3 단계: '북한 선교'를 통한 점점 확대

한국 교회에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인 **북한 사역**을 매개체로 연결을 강화한다. 북한은 WWL 33년 역사 이래 23년간 박해 순위 1위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북한이 전 세계 가장 박해가 심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사역은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함으로써 사역 공개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등급을 조절하여 지역교회가 실제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북한선교학교 참여:** 한국오픈도어가 운영하는 북한선교학교나 세미나에 교회 종직자와 청년들을 참여시켜, 현장 보고서에 기반한 전문적인 북한 선교 전략을 학습하게 한다.
- **지하 교회 지원 프로젝트:** 오픈도어의 검증된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sup>17</sup>에 교회가 직접 동참할 수 있다.

### 4 단계: '프로젝트 입양(Project Adoption)' 방식의 도입

교회의 규모나 비전에 맞는 특정 국가 혹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픈도어 사역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천 개의 현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아주 낮은 상태에 있으므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소개될 필요가 있다.

- **맞춤형 매칭:** 예를 들어, 여성 사역에 비전이 있는 교회는 중동 지역의 '박해받는 여성 직업 훈련 프로젝트'를, 교육에 강점이 있는 교회는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 학교 설립 및 교재 보급'을 입양할 수 있다.
- **지속 가능성:** 단순한 성금 전달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성도들이 자신들의 기도와 후원이 현장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실시간으로 체감하게 된다.<sup>18</sup>

---

<sup>17</sup> 까마귀 작전, 베들레헴 작전 등이 실행되고 있다. 성경이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고, 북한교회 지도자 훈련을 위한 방송 사역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sup>18</sup> 오픈도어는 현장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전략적 프로젝트 관리 모델"(SPMM: Strategic

## 5 단계: 현장 방문 및 훈련 협력

동반자 선교의 꽃은 선교 현장과 한국 지역교회와의 매칭에 있다. 현장 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구체적인 필요(Technical Needs)를 한국교회의 인적 자원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 **현장 방문(IPM: International Present Ministry):** 매년 필드팀에 의해 현장 방문팀 규모가 결정된다. 현장 방문은 프로젝트 입양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프로젝트를 직접 체험한다. 입양이 결정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IPM 을 실행한다.
- **전문성 매칭:** 예를 들어, WWL 보고서가 '트라우마 치료'나 '법률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역이 있다. 이 지역에 한국교회의 의료인, 법률가, 상담가들을 IPM 이나 자문위원으로 연결한다.
- **선교지 위기관리 교육:** 오픈도어의 현장 안전 수칙과 박해 대응 매뉴얼을 한국교회의 파송 선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도입하여 협력한다.

## 7. 나가는 말

필자가 아는 오픈도어의 한 열렬한 후원자가 있다. 그는 오픈도어 소식지를 통해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접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지금까지 이런 박해받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 그리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사역을 후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모든 후원금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전달해 왔다. 이 성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달 빠짐없이 박해받는 교회를 후원해 오고 있다.<sup>19</sup>

이 후원자가 어떻게 박해받는 교회를 만났을까? 그 중심에 월드와치리스트가 있다.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는 단순히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박해가 심한 지역 교회의 현실과 필요를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함께 나누는 플랫폼이다. 한국교회의 선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선교 전략적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WWL 을 통해 교회와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모델을 개발해 왔다. 선교 현장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선교사 파송을 지양(止揚)하는 것도 이와 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

Project Management Model)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모델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라.

<https://www.opendoors.or.kr/board/view.do?iboardmanagerseq=17>

<sup>19</sup> 오픈도어는 이러한 지정 현금이 현장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는 재정 분배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지정된 모든 후원금은 국제본부의 풀링 시스템(Pooling System)으로 모이고, 현장의 필요에 따라 집행된다.

모델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교회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WWL 는 선교 현장의 큰 전환기에 오픈도어 사역의 방향을 견인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선교사의 입국이 점점 제한되고 있다. 선교사 파송을 위하여 창의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지금이 바로 오픈도어의 동반자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오픈도어는 선교에 제한된 철의 장막의 문을 열었고, 이슬람 국가의 비밀 신자들을 통해 활발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픈도어가 구축한 종단적 선교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선순환적 선교 구조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교회는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문이 열리기를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한다.

# WWL 2026 북한 보고

## -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2024년 러우 전쟁 파병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북한은, 2025년에도 중국,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강화된 자신의 입지를 여러 차례 과시하며 전 세계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의 맨 앞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화려한 부상 뒤에는 여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현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극심한 억압과 박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일부의 증언이나 특정 선교지의 주장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와 북한의 법제도 분석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실입니다. 북한 당국은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적발하여 처벌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신앙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2014.2.17.)를 업데이트 한 유엔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가 2025년 9월 4일 발표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살펴보면 북한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권고를 대부분 수용 및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COI 조사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주민통제가 제도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유엔 보고서가 지적한 더욱 심화되는 북한의 주민 통제는 기독교 박해를 직접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제정한 주민 통제 법령 이전부터 북한은 기독교인임이 발각될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상식처럼 받아들여질 만큼 강도 높은 핍박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한 박해가 공식화,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 29 조에는 종교 미디어 유입·유포한 사람들에게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교양보장법은 제 41 조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16 가지를 나열했는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와 마약 관련 행위 등과 함께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중 세 번째로 '종교와 미신행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법령은 단순히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박해적 규정이 포함된 것을 넘어, 실제적인 통제와 단속, 그리고 박해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 NK는 25년 11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청년교양법 상에 종교행위 금지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을 계기로 국가보위성 반탐(반간첩) 부서를 중심으로 단속체계를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 내 종교활동을 크게 억제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교 단속만을 전담하는 별도 부서는 없지만, 반탐부가 종교 행위를 '반국가 범죄'로 분류해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 정보 유입이 잦은 국경 지역(함경북도·양강도 중심)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유학생이나 파견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중·삼중 감시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부분의 지하 예배 조직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일부 주민이 혼자 기도하거나 성호를 긋는 정도의 개인적 행위만 남아 있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자체 평가라고 해당 보도는 전합니다.

본 선교회가 파악한 바로도 지난해 북한의 단속과 통제활동은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또한 기독교를 직접 겨냥하였습니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초에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서 북한의 사회안전성이 주도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사회통제와 검문과 검색, 가택수색과 체포가 거의 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길목, 젊은이들을 집중해서 단속하였고, 처벌도 강화하였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및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이 사회통제와 단속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속의 주요 대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류 문화와 함께 기독교의 유입 및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살하려는 집중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거주 지역에 숨겨놓은 기독교 관련 문서들이 적발되거나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에 기독교 관련 디지털 자료들이 있는 경우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단속의 결과는 구체적인 박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발생한 기독교 박해 사건들은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를 전후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년 함경북도에서는 남한의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은 마을 주민 12명이 구속되고 그중 2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건, 2019년 평양에서 지하교회가 적발되어 5명이 공개처형되고 7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약 1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22년 황해남도에서 가택수색 중에 성경책이 발견되어 단속된 주민이 15년 형을 받았다는 증언 등 최근까지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하였습니다.

강제 복송된 신자를 대상으로 한 박해도 우려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25년에만 강제 복송된 탈북자가 4백 명 이상이며, 2020년 이후로 계산하면 1천 명 이상이 복송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데일리 NK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23년 복송된 이들 중 기독교 관련 단체와 접촉이 있었던 이들,

특히 성경을 들었거나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이들을 정치범수용소로 수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10년 넘게 억류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기독교 박해 사건의 정황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 당국의 집요한 추적으로 인해 지하교회가 적발되고, 다수의 성도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건 소식이 여러 차례 전해졌습니다. 그중에는 외부와 연계된 지하교회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으며, 오랜 기간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온 한 신자 그룹이 간헐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던 모임이 끝내 발각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1~2년간 수집된 사례만 보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신자의 규모가 세 자릿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저히 국경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정보 유통과 인적 왕래를 심하게 제한하는 북한의 상황 속에서도 들려오는 박해의 소식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함께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 박해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합니다.

얼마 전 고(故)한총렬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다 납치되어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장문석 집사가 풀려나 12년 만에 귀환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문석 집사의 사례는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는 북녘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며진 평양의 전경과 첨단 무기 체계, 외교 무대에서 높아진 위상을 드러내는 북한의 모습 뒤에는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희생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그동안 잊어서는 안 될 북녘의 형제 자매들에게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길 도전합니다. 박해받는 북녘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후원 안내

## 1. 후원 방법

| 구분 | 상세 내용                      |
|----|----------------------------|
| 종류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매월 자동이체) 가능 |
| 선택 | 후원 항목 다중 선택 가능             |
| 송금 | 총 후원금은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     |

## 2. 희망의 선물 계좌 (총 후원금)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신한은행 | 100-027-453994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 3. 주요 후원 항목 (희망의 선물)

| 후원 항목                   | 최소 후원금    |
|-------------------------|-----------|
| 박해지역 성경 전달 (오디오·디지털 포함) | 7,000 원~  |
| 제자훈련·목회자 훈련 및 컨퍼런스      | 30,000 원~ |
| 안전가옥·생계 지원 (이슬람권·탈북자)   | 40,000 원~ |
|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 50,000 원~ |
|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및 교육     | 50,000 원~ |
| 크리스천 난민 구호 및 법률 지원      | 60,000 원~ |

| 후원 항목        | 최소 후원금     |
|--------------|------------|
| 파괴된 교회 보수·재건 | 120,000 원~ |

#### 4. 지역별 후원 계좌(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지역        | 은행       | 계좌번호             |
|-----------|----------|------------------|
| 북한        | KB 국민은행  | 029301-04-169183 |
| 아시아       | 우리은행     | 1005-901-884970  |
| 중동(걸프 포함) | 우리은행     | 1005-701-884976  |
| 중앙아시아     | 우리은행     | 1005-201-884969  |
| 아프리카      | 우리은행     | 1005-901-884982  |
| 라틴아메리카    | KEB 하나은행 | 630-007636-461   |
| 선교회 후원    | KB 국민은행  | 029301-04-167093 |

#### 5. 📞 후원 신청 및 문의

휴대폰: 010-7548-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mailto: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실 경우 주민등록번호 13 자리 기재가 필수입니다.

# WWL 2026 국가별 기독교 박해 현황

## (51 위 ~ 75 위 및 필리핀)

### 51. 말레이시아 (Malaysia)

- **WWL 2026 점수:** 65 점 (WWL 2025 대비 0.2 점 상승)
- **현황 요약:** 점수는 변동이 없으나, 폭력 점수가 3.0 점에서 4.1 점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특히 교회를 향한 공격 횟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교회 생활 영역'에서의 압박 수치가 감소하면서 상쇄되었는데, 이는 감시나 종교 지도자 훈련 및 청소년 활동 방해에 대한 보고가 약간 줄어든 것을 반영했다. 하지만 상황은 지역별로 여전히 크게 다르며, 특히 개종자들에게 매우 도전적이다. 교회들은 새로운 신자를 공동체에 통합하는 데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 52.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 **WWL 2026 점수:** 65 점 (WWL 2025 대비 0.3 점 상승)
- **현황 요약:** 종합 점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평균 압박 지수는 11.8 점, 폭력 지수는 5.9 점으로 안정적이다. 무슬림 가족, 친구 및 마을 주민들이 개종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교회 활동에 많은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에서는 주로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를 포함한 최소 10 개의 공공 기독교 건물이 체계적으로 폐쇄되고 파괴되었다.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종교 단체의 활동을 밀착 감시한다. 공식적으로는 세속 국가이며 종교가 허용되지만, 감시 수준이 너무 높아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이슬람 배경의 현지 기독교인들이 국가와 가족, 공동체로부터 가장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

### 53. 탄자니아 (Tanzania)

- **WWL 2026 점수:** 64 점 (WWL 2025 대비 1.3 점 상승)
- **현황 요약:** 폭력 사건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점수가 1 점 상승했다. 탄자니아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는 사회적·종교적·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잔지바르와 해안 지역처럼

보수적인 이슬람 관행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기독교인들—특히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강한 압박과 괴롭힘, 심지어 신체적 공격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종자들은 종종 집에서 쫓겨나거나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해 고립되고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 엄격한 종교적·문화적 규범을 따르라는 사회적 기대는 이러한 박해를 더욱 심화시키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 복장 규정과 같은 전통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고 배제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모잠비크와 국경을 접한 지역에서는 국경을 넘는 공격이 발생하면서 지하디스트 폭력의 위협이 커지고 있어, 기독교 공동체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 또한 특히 잔지바르에서는 정부 관리들이 기독교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교회들을 면밀히 감시하며, 지도자들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의 공간이 줄어들고, 지역 지도자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며,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경향이 심화되면서, 기독교 공동체는 과거에 의지하던 제한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 54. 케냐 (Kenya)

- **WWL 2026 점수:** 64 점 (WWL 2025 대비 0.5 점 하락)
- **현황 요약:** 케냐의 점수는 작년 결과와 거의 비슷합니다. 폭력 수치는 1 점 하락한 반면, 다른 5 개 영역에서의 압박이 소폭 상승하며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북부와 해안 지역이 기독교인, 특히 개종자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테러 단체 알샤바브(al-Shabaab)가 압박과 폭력 양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55. 베트남 (Vietnam)

- **WWL 2026 점수:** 64 점 (WWL 2025 대비 2.9 점 하락)
- **현황 요약:** 살인이나 교회 공격 보고가 없어지면서 폭력 점수가 5.9 점에서 2.6 점으로 하락하여 종합 점수가 3 점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려 노력함에 따라 박해가 가족이나 마을 단위의 '현지화된 괴롭힘'으로 변하면서 평균 압박 수치는 12.2 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부 고원 지대의 소수 민족과 비전통적 개신교인들이 타겟이 되고 있으며, 공산당 정부는 종교 사무국을 통해 모든 등록된 교회와 종교 활동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56. 러시아 연방 (Russian Federation)

- **WWL 2026 점수** 63 (WWL 2025 대비 0.6 점 상승)
- **현황 요약:** WWL 2026 에서 종합 점수는 변동이 없었으나, 평균 압박 수치는 11.7 점에서 12.0 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폭력 점수가 4.4 점에서 3.3 점으로 하락하면서 상쇄되었습니다. 체포 및 선고를 받은 기독교인의 수는 WWL 2025 보다 많았으나, 살해 사건은 없었으며 교회 공격도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부는 비러시아 정교회 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코카서스 지역에서는 특히 개종자들이 이슬람 가족과 공동체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 57.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 **WWL 2026 점수** 63 (WWL 2025 대비 1.8 점 상승)
- **현황 요약:** 종합 점수가 (반올림하여) 2 점 상승했습니다. 평균 압박 수치는 12.1 점으로 아주 미세하게 상승했으나, 주된 요인은 폭력 점수가 0.6 점에서 2.2 점(최근 5 개 보고 기간 중 최고치)으로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주요 원인은 기독교인들이 강제로 국가를 떠나게 된 사례를 포함하여, 보고된 사건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은 공개될 수 없습니다.

## 58. 지부티 (Djibouti)

- **WWL 2026 점수** 62 (WWL 2025 대비 0.4 점 상승)
- **현황 요약:** 지부티의 점수는 WWL 2026 에서 1 점 상승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폭력 부분의 1 점 상승에 기인한다. 지부티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의 억압, 씨족 구조, 그리고 정치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이념적 이해관계가 수렴되는 지부티의 전략적 위치로 인해 국가는 신중하고 엄격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부티는 수년 동안 안정을 유지해 왔으나, 그러한 안정이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더 넓은 공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폭력 수치는 보통 지역 내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압박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일상적인 제약, 사회적 감시, 그리고 국가적 의심이 신자들의 경험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 개종자들은 가장 가혹한 결과에 직면한다. 일단 그들의 신앙이 알려지면 가족의 압박, 씨족의 기대, 그리고 공식적인 감시가 결합되어 그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 59. 인도네시아 (Indonesia)

- **WWL 2026 점수** 62 (WWL 2025 대비 0.6 점 상승)
- **현황 요약:** 인도네시아의 점수는 61 점에서 62 점으로 1 점 상승했으며, 이는 폭력 점수 2.5 점 상승과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분산된 1.5 점의 하락이 결합된 결과이다. 폭력 점수의 상승은 주로 교회, 기타 기독교 자산 및 기독교인의 가옥이 파괴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점수 하락은 여전히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개종자들을 제외하고, 보고된 압박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박해 수준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서부 자바, 파푸아, 아체 등은 급진 이슬람 단체가 사회와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해 집중 지역이다. 이곳의 사회 전반은 점차 더 보수적인 이슬람 성향을 띠고 있다.

## 60. 쿠웨이트 (Kuwait)

- **WWL 2026 점수** 61 (WWL 2025 대비 변동 0.0 )
- **현황 요약:** WWL 2026 에서 종합 점수는 변동이 없다. 개교(proselytism)에 대한 쿠웨이트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해 주는 일부 사건들이 보고되었다. 보안상의 이유로 상세 내용은 공개될 수 없다. 쿠웨이트의 기독교인은 대부분 외국인 이주민이며, 아주 적은 수의 토착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개종자들로 나뉩니다. 이슬람 외의 종교를 전파하는 행위(개교)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될 경우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개종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당해야 할 보복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가 신앙을 숨깁니다. 이로 인해 겉으로는 신앙 때문에 살해되거나 다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 61. 부룬디 (Burundi)

- **WWL 2026 점수** 60 (WWL 2025 대비 변동 1.5)
- **현황 요약:** 점수 상승은 전적으로 폭력 점수의 상승 때문이다. 정권의 강압적 통제로 정치 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집권당의 청년 조직인 '임보네라쿠레(Imbonerakure)'가 감시와 압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정치적 요구에 저항하거나 독립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기독교인들은 폭력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 예배 및 기타 종교적 모임을 위한 집회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교회와 종교 단체는 모임을 위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무단 집회 시 체포, 구금,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인 해산의 위험이 따릅니다.

## 62. 르완다 (Rwanda)

- **WWL 2026 점수 60** (WWL 2025 대비 변동 2.2)
- **현황 요약:** 점수가 58 점에서 60 점으로 상승했다. 기독교인들은 집권당의 통치 이념에 부합해야 하는 까다로운 정치적 기류 속에서 활동한다. 표현의 자유는 엄격히 관리되며, 교회 폐쇄가 현실화되고 있다. 많은 소규모 교회들이 등록 승인을 받지 못해 법적 불확실성과 운영상의 취약 상태에 놓여 있다.
- 정부의 만연한 개입은 가정 생활 영역까지 확대되어, 보안 요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자택을 영장 없이 수시로 수색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전반에 공포와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합니다.

## 63.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Palestinian Territories)

- **WWL 2026 점수 59** (WWL 2025 대비 변동 -0.2)
- **현황 요약:** 종합 점수는 변동이 없다. 보고된 폭력 사건은 없었으나(과소 보고 가능성 있음), 가자 지구의 전쟁과 서안 지구 내 유대인 극단주의자 및 이스라엘 군대의 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긴장감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2023-2025)은 가자 지구의 소수 기독교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며, 서안 지구 내의 압박 또한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30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고, 대부분이 집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서안 지구에서는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 당국이 부과한 기존의 제한 조치들이 더욱 악화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많은 기독교인 가정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떠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64. 남수단 (South Sudan)

- **WWL 2026 점수 58** (WWL 2025 대비 변동 11.3)
- **현황 요약:** 2026 년에 58 점을 기록하며 2025 년 대비 11 점이라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 인구의 약 32%가 주로 농촌 지역에 집중된 전통 종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신앙 자체가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하는 문화적·종교적 의례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전통 의례와 씨족 기반 활동에 참여하라는 민족 집단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하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되거나 그보다 더한 보복을 당할 위험이 큼니다.

#### 65. 스리랑카 (Sri Lanka)

- **WWL 2026 점수 56** (WWL 2025 대비 변동 -4.4)
- **현황 요약:** 종합 점수가 4 점 하락했다. 이는 가족 생활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압박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특정 종교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 정부 요원에 의한 차별 관행이 감소했다. 그러나 개인 생활 영역에서의 압박 수치는 여전히 가장 높다.
- 불교 또는 힌두교 배경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가장 강력한 박해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괴롭힘, 차별, 소외를 당합니다. 개종은 배신으로 간주되어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스리랑카 다수 민족인 싱할라(Sinhalese)족은 모두 불교도여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있으며, 동북부의 소수 민족인 타밀(Tamil)족 역시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소속이 아닌 한 모두 힌두교도여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다.

#### 66. 토고 (Togo)

- **WWL 2026 점수 55** (WWL 2025 대비 변동 1.2)
- **현황 요약:** 점수가 1 점 상승했다. 기독교인들은 더욱 엄격해진 행정적 통제와 지역사회의 감시에 직면해 있다. 전통 종교(ATR)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 구조가 여전히 기독교 그룹, 특히 소규모 교회를 소외시킨다. 북부 지역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요소의 존재로 인해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 67. 기니 (Guinea)

- **WWL 2026 점수 55** (WWL 2025 대비 변동 1.4)
- **현황 요약:** 수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압박 환경을 반영하여 1 점 상승했다. 2021년 9월 세 번째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이 집권 중이며, 민정 이양 지연과 반대 세력 억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과 억압적인 보안 체계가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일상 생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 68. 바레인 (Bahrain)

- **WWL 2026 점수: 54** (WWL 2025 대비 변동: 0.0)
- **현황 요약:** 종합 점수는 변동이 없다. 바레인에는 주로 남아시아 출신의 상당수 외국인 기독교인이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전도하거나 이슬람을 모욕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예배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바레인에는 소수의 토착 기독교인들도 존재한다. 현지 개종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거나, 지역을 떠나거나, 혹은 새로운 신앙에 대해 침묵하라는 가족과 지역 사회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개종자들은 개종의 결과로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외국인 무슬림들 또한 자국민이나 같은 민족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국에서와 유사한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 69. 베네수엘라 (Venezuela)

- **WWL 2026 점수: 54** (WWL 2025 대비 변동: 1.8)
- **현황 요약:** 마두로 정부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교회가 야당에 동조하거나 정치적으로 순응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법적 지위를 위협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조건부로 제한하는 등 행정적·형사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 폭력 점수는 살해 사건의 감소로 약간 하락했으나, 교회 공격, 구금, 납치, 물리적 폭행 및 강제 이주와 같은 다른 형태의 폭력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 국가 내 가장 오래된 종교 기관인 가톨릭 교회는 교황청과 공식 협정을 맺고 있는 반면, 개신교는 정부에 협력하거나 비판적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러 그룹으로 분열되어 있다. 정부는 종무 부처, 교회 전수조사, 국가 지원 프로그램 및 목회 정부 위원회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복음주의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해 왔으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순응적인 단체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이들을 정치적 지지 세력으로 이용하곤 한다. 정부 노선에 맞춘 등록 절차와 자금 지원은 순응적인 교회들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반대하거나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교회들은 운영 및 활동에서 장애물에 직면한다. 정부를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괴롭힘, 비자 제한, 교회 등록 제한,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간섭 등을 겪게 된다.

## 70. 앙골라 (Angola)

- **WWL 2026 점수: 54** (WWL 2025 대비 변동: 0.9)

- **현황 요약:** 점수가 53 점에서 54 점으로 상승했다. 앙골라의 등록 체계는 매우 까다롭고 불공정하여, 수천 개의 교회가 10 년 넘게 정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공식적인 승인 없이 활동하는 목회자들은 위협, 벌금, 구금에 직면하며 정기적인 예배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71. 우크라이나 (Ukraine)

- **WWL 2026 점수: 53** (WWL 2025 대비 변동: 0.2)
- **현황 요약:** 전년과 거의 동일한 점수를 기록했다. 평균 압박 수치는 9.1 점에서 9.7 점으로 상승했으나, 국가 영역에서의 압박은 약간 감소했다. 폭력 사건의 수준은 낮아졌다.
- 러시아가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서는 러시아 정교회(ROC)가 특권을 누리는 지위에 있으며, 그 외의 모든 종교 교파는 제약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본토에서는 두 경쟁 정교회 간의 분쟁으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UOC)는 2022 년 2 월 24 일 러시아의 침공에 항의하여 2022 년 5 월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단절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4 년 9 월 우크라이나 본토 내에서 러시아 정교회(ROC)를 전면 금지했다.

## 72. 우간다 (Uganda)

- **WWL 2026 점수: 53** (WWL 2025 대비 변동: 1.0)
- **현황 요약:** 점수가 1 점 상승했다. 주로 동부 우간다의 무슬림 배경 개종자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겪는 적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군사연합(ADF)과 같은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으로 인한 불안감이 기독교 공동체를 위축시키고 있다.

## 73. 코트디부아르 (Ivory Coast)

- **WWL 2026 점수: 52** (WWL 2025 대비 변동: 1.3)
- **현황 요약:** 폭력 점수의 상승으로 전체 점수가 올랐다. 특히 북부 지역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억압과 씨족 중심의 적대감에 직면해 있다. **정권의 강압적인 통제욕**이 기독교 공동체의 활동 범위를 좁히고 있으며, 과거 내전의 잔재가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 74. 온두라스 (Honduras)

- **WWL 2026 점수: 52** (WWL 2025 대비 변동: -2.9)
- **현황 요약:** 기독교인 살해 사건이 줄어들며 폭력 점수가 하락해 전체 점수가 낮아졌다. 하지만 갱단과 범죄 조직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인과 지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교회들은 범죄 활동에 간섭하지 않고 '충성'을 보일 것을 강요받고 있다.

#### 75. 감비아 (Gambia)

- **WWL 2026 점수: 50** (WWL 2025 대비 변동: 3)
- **현황 요약:** 개인, 가족, 공동체 영역에서의 압박이 늘어나며 점수가 상승했다. 이슬람의 억압이 주요 원인이다. 2024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이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 필리핀 (Philippines)

- **WWL 2026 점수 39** (WWL 2025 대비 변동 -4.1)
- **현황 요약:** 종합 점수가 4 점 하락했습니다. 살해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고 교회 공격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부 지역에서는 이슬람화가 진행되며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